

통도사 방장 불신임

산중회의 출범...차기 주지는 영배 스님 품신키로

차기 주지 추천으로 불거진 통도사의 갈등이 방장 원명 스님의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5월 24일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산중총회는 제적승려 414명 중 227명 참석(이중 82명은 위임)해 성원됐다.

통도사 대중스님들은 '영축총림 방장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했다. 차기 방장으로는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추대하고, 차기 주지는 영배 스님을 품신키로 했다.

또, 임회 권한을 갖는 산중회의를 구성키로 하고 의장에 명신 스님을, 부의장에 재경·범해 스님을 선출했다. 산중총회는 통도사 대중스님들이 임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구성한 비상대책기구이다. 산중총회의는 승남 10년 이상의 통도사 대중스님 가운데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중스님들은 "24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스님이 불신임되고, 임회의 기능도 유보됐다. 주지임기도 29일자로 만기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산중총회의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도사 자정을 위한 대중결사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서 대중스님들은 방장 원명 스님의 자신 사퇴와 괴문서 발송자 산문 출송을 촉구했다. 총무원에는 임회 결의를 존중해 줄 것과 대중공의 없는 주지추천을 반려했다

고 요구했다.

결의문 촉구사항 이행을 위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표창사 주지 재경 스님 등은 통도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참회 단식 정진을 시작했다.

이어 27일, 통도사 대중스님들은 경내 육화당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회의' 출범식을 열고, 영축총림의 비상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체 제적승려 414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27명 스님들의 대중공의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장 원명 스님 측인 경봉문도회 총무 인산 스님과 반산 스님은 "산중총회 개최 전 방장스님이 '산중총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중총회의 위임참석도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임을 포함해 산중총회의 성원이 된 것과 관련해 산중총회법과 중앙총회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설 명이다.

또, 경봉문도회는 산중총회서 대중스님들이 영배 스님을 통도사의 새 주지로 품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방장스님이 원산 스님을 통도사 주지로 추천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방장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방장스님 측 반발과 별도로 새 방장으로는 추대된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도 방장자리를 고사했다.

월파 스님은 25일 입장문을 통

해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자신이 방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이 마음에 많이 없잖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내게 방장을 하라고 해도 방장의 자리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도사 사부대중이 문중별로 분열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산중 어른으로서 이무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다. 통도사 사부대중이 화합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도사 산중회의 부의장 범해 스님은 "월파 스님의 말씀은 산중의 갈등 구조를 화합으로 회화하라는 것"이라며 "월파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 것과 영배 스님을 통도사 주지로 품신한 것 등 산중총회서 결의된 대로 이행해 나갈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총림 주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스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조계회 총사무처장 재원 스님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도사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총무원장스님의 결단 뿐"이라며 통도사 주지 임명에 대한 자승 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통도사 정상화를 위해 총림주지 임명권자인 자승 총무원장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분당에 천태명상센터 건립

천태종, 불교문화 중심 문화체험 전파 기대

경기 분당에 불교문화 중심의 대규모 전통불교문화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는 5월 22일 경내 대불보전에서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다도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센터는 천태종 도심포교사찰인 분당 대광사에 연면적 1만70㎡(3043평)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세워진다. 센터 지상에는 1개 층의 천태명상센터와 2개 층의 다도문화센터가, 지하에는 대강당,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정신문화인 명상이 지혜로운 원력에 힘입어 센터라는 현대적 공간에서 각색됨에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개회사에서 "센터는 전통문화를 계승·체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이를 공유·체현하고자 오는 기공식을 하게 됐다"며 "지역문화 수준향상 및 국내를 찾는 외국인에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사상, 통일의 중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주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5월 2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신적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은 분단 이전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와 국민의 탄생과 창조"라며 "신라 삼국통일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호국정신과 불교도,



불연국토사상(佛緣國土思想) 사상과 같은 불교의 정신적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 외교 △복합 동포에 대한 햇빛정책을 통해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수도권 포교, 머리 맞댄다

조계종이 수도권 포교의 대안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5월 24일 수도권불교활성화 방안 TFT 실무회의를 열고, TFT를 구성했다.

수도권 불교활성화를 위한 TFT에는 총무원 총무부·기획실, 교육

원, 포교원, 포교연구실, 불교사회연구소 등 종무기관과 조계사 불은사 수국사 회계사 도선사 등 수도권 주요사찰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수도권 포교전략수립과 지역거점포교로서의 사찰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사회 급변 할수록 불교 중요"

토랑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사진)은 5월 24일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랑 추기경은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전하려는 소명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의 주장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종교,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참된 대화입니다." 박기범 기자



화엄·법화회 승려노후기금 등 3억원 전달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모임인 화엄회(회장 성직)와 법화회(회장 정범)는 5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승려복지·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두 종책모임이 4월 개최한 선사화전을 통해 모인 수익금 중 일부다. 두 종책모임은 선사화전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모은데, 이날 전달한 승려복지기금 1억원, 자비나눔기금 2억원을 비롯해, 지구촌공생회에 5000만원(3만달러) 등을 쾌척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에 힘써달라

동국대에 수불 스님 50억원, 진흥원 1억원 기부

조계종립 동국대에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안국선원 수불 스님이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 기금으로 50억원을 약정한데 이어, 대한불교진흥원도 대원불교문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안국선원 수불 스님이 5월 23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동국대 국제

선센터 건립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약정하고, 이날 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이 약정한 50억원은 전액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동국대는 김희욱 총장의 리스타트프로젝트(RE-START Project)의 일환으로 국제선센터를 건립하겠

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선센터는 동국대 재학생의 선실수, 불교 포교 및 한국불교의 국내외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같은 날,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진흥원 회의실에서 동국대 김희욱 총장에게 대원불교문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동섭·천진영 기자

대한불교 표암(알평)승가회 제 3차 모임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이념을 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뜻이 있는 경주이씨 성을 지닌 스님께서는 본 승가회에 가입을 환영합니다.

명예회장 만웅 도일, 영공 동성
회장 홍산 현불
사무총장 능인

- 모임일시 : 불기 2555년(2011년) 6월 22일 정오 12시
- 모임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56-20 서심정사
- 동참회비 : 3만원
- 문의전화 : 서울 02)761-0410, 041)943-7620
대구 053) 325-5288
회장 010-6478-1569
사무총장 010-3900-3050

* 본 승가모임에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경허선사 문하 만옹대선사 문도 법제자 건당식

한국 불교계에 선풍을 일으킨 경허선사(鏡虛禪師)문하 법통을 이어받을 대덕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호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바로 성우 경허(惺牛 鏡虛)선사께서는

우리불교의 불씨를 되살려 햇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큰 스승입니다.

이에 선 법맥을 이어 받으신 손상좌 만옹대선사(萬翁大禪師) 문도에 건당을 하여 법제자 되실

대덕 큰스님들께서 주저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허선사문하 만옹대선사 문도회 회장 현불 합장

- 신청마감 : 6월 13일 오후 5시
- 자격요건 : 승남 25년 이상 또는 품계 : 대덕이상
- 신청동참금 : 30만원(건당신청서 제출)
- 법제자증명 : 가사(본인지참), 전법계, 법권, 발우
- 문의 : 02)785-6870 / 041)943-7620
회장 : 010-6478-1569 / 사무총장 010-8900-3050
- 일시 : 불기 2555년 6월 26일(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충북 청원군 쌍이리 산 7-1번지 담화정사